

## '강령' 에대한러시아아나키스트 들의답변

리아, 몰리슈타이며, 로만에르반티안, 슈바르츠,  
세냐플레신, 소볼, 볼린

리아, 몰리슈타이며, 로만에르반티안, 슈바르츠, 세냐플레신, 소볼, 볼  
린  
'강령' 에대한러시아아나키스트들의답변  
1927

## 차례

|                                       |    |
|---------------------------------------|----|
| 아나키스트운동의약점에관하여 . . . . .              | 3  |
| 아나키스트의합명제 synthesis 에관하여 . . . . .    | 3  |
| 계급적이론으로써의아나키즘에관하여 . . . . .           | 4  |
| 사회적투쟁및사회혁명에서대중과아나키스트의역할에관하여 . . . . . | 5  |
| 이행기에관하여 . . . . .                     | 6  |
| 생산에관하여 . . . . .                      | 7  |
| 혁명의방어에관하여 . . . . .                   | 8  |
| 아나키스트조직에관하여 . . . . .                 | 10 |
| 조직건설의방법론 . . . . .                    | 10 |
| 아나키스트조직의역할과성격 . . . . .               | 12 |
| 아나키스트조직의구성 . . . . .                  | 12 |

## 아나키스트운동의약점에관하여

우리는‘아나키스트운동이취약한가장중요한이유가조직적원칙의부재’라는『강령』의입장에동의하지않는다.『강령』은‘아나키스트운동에정치적·전술적입장’을만들중앙집중화된조직(당)을건설하고자하기에,우리는이문제를중대하게바라본다.“강령”은조직의중요성과역할을과장한다.

우리는아나키스트조직을반대하지않는다.우리는조직의부재가아나키스트운동에가져온해로운결과를이해한다.우리는아나키스트조직의건설이우리의시급한과제중하나라고판단한다.하지만우리는그조직이만병통치약이될것이라믿지않는다.우리는조직의중요성을과장하지 않으며,우리는조직을위해아나키스트의원칙과이상을희생해야할필요성을발견하지못한다.우리는아나키스트운동의약점이다음과같다고판단한다.

1. 사회혁명의개념에관한, 폭력에관한, 이행기에관한, 조직에관한 우리의혼란.
2. 다수대중에게우리의이상을납득시키는과정의어려움. 이는선입견, 관습, 교육, 다수대중이급진적변화보다안정을원한다는사실에근거한다.
3. 탄압.

## 아나키스트의합명제 synthesis 에관하여

또한우리는『강령』이언명하는바‘합명제’에동의하지않는다.『강령』의저자들은아나키즘적코뮌주의가유일하게유효한이론이라주장한다.그리고그들은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과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에대하여부정적태도를취한다.

나뭇(NABAT, 1917년부터 1921년까지존재했던우크라이나아나키스트의조직)을조직했을때,우리가선언했던바를다시반복하도록하자.“모든아나키스트사상의분파에는유효성이있다.우리는다양한경향성모두를고려하고,용인해야한다.”모든투사들을단결시키기위해,우

리는 각각의 분파의 장점을 바라보고, 공통의 기반을 찾아야 한다. 『강령』에는 전체 운동의 관점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강령』들에서는 이것이 가능했다. 쿠르스크나 밋총회에서 성명이나, 당대어나 키스트총회에서 결론들 같은 것 말이다. 우크라이나어나 키스트조직총연맹(나밋)의 1차 총회(1919년 4월 2일, 우크라이나 엘리바 베스그라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조직은 서로 다른 경향들이 각각의 관점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노동대중에 게이데올로기적 이정표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기계적 동맹을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방의 기반 위에서 계획되고 조직된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러 위치에서 있는 동지들의 동맹이다.”

## 계급적이론으로써의 아나키즘에 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명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아나키즘이 계급적이론이라고 확언하거나, 아나키즘에 인간성을 부여하려는 이들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아나키즘이 모든 인민의 인본주의적 이상이라 주장하는 이들처럼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계급 기반적 입장을 가진 아나키스트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또한 우리는 아나키즘이 오롯이 개인적이며 인간성이나 ‘계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없다. 우리는 합명제를 만들어야 하며, 아나키즘이 계급적 요소와 인본적 요소와 개인주의적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고 선포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이 아나키즘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구성하는데 있어 각각의 역할과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아나키즘이 오직 계급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나키즘을 단일한 관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아나키즘은 마치 삶 그 자체와 같아서 보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아나키즘의 계급적 요소는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아나키즘의 인본주의적 성격은 그 도덕적 부분을, 사회의 근간을 구성한다. 아나키즘의 개인주의적 성격은 인류의 목표를 구성한다.

조직들간의 일정한 이데올로기적, 전술적 단결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단결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다시금 우크라이나 의 조직나 밋이 받아들인 해결책을 언급한다. ‘공식적 동맹이라기보다는 수단과 목적에 관한 공통된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의 모임으로써의 조화로운 아나키스트 조직’이 그것이다.

『강령』은 “아나키즘은 언제나 중앙 집중화된 조직을 거부해 왔다”고 확언한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집행 위원회를 통한 이데올로기적이며 조직적인 지침이 하달되는 중앙 집중화된 조직의 그림을 그려낸다. 그리고 이 조직을 통해 노동자의 직업적 조직에 지침을 내릴 것이라 한다.

연방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강령』의 저자들은 볼셰비즘으로부터 단한 발짝만 다르다. 그리고 『강령』의 저자들은 감히 이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한다. 볼셰비키와 “강령주의자”들의 공통점은 러시아 동지들에게 공포로 다가온다. 아나키스트 당 최고 위원회라 부르건, 집행 위원회라 부르건, 서기장이라 부르건 차이는 없다. 아나키스트 조직에 적합한 정신은, 서로 다른 지역 그룹과 연방들간의 관계와 상호 부조와 정보를 위한 기술적 조직이다.

결론적으로, 『강령』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 요소는, 그 저자들이 숨기고 있는 볼셰비즘적 수정주의와 이행기의 수용에 있다. 『강령』의 나머지 부분은 전혀 독창적이지 않다. 타국의 동지들에게 이것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러시아 혁명과, 러시아에서의 아나키즘에 대한 논의가 다른 언어로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타국의 동지들은 러시아 혁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그들 중 일부가 『강령』의 해석을 수용한 것은 이에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강령』에 대한 논의가 오해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든의견과경향성을포괄하고, 그안에서각각을대변하며, 이로써함께하는것에익숙해질수있는단일한기관지를선호한다. 단일한기관지를통해우리의문제에대한온전하고관용적인논쟁을촉발하는것은아나키스트들뿐아니라아나키즘의서로다른관념간이해의기반을만들수있을것이다. 각각의이상을조직적방법으로함께논의하자는합의는평행선에서진보할수있게할것이다.

## 아나키스트조직의역할과성격

조직에있어역할과목적은근본적문제다. 이문제에대한명확한정의를지니지못하면진지한조직은존재할수없다. 조직의목적은그형태에의해결정된다. 『강령』의저자들은그역할에대해대중을, 노동조합을, 다른모든조직들을, 그들의행동과발전을선도하는것으로두었다. ‘선도한다’는단어를‘이데올로기적’이라는단어와병치한다고해서, 『강령』의저자들이조직을규율을지닌정당으로인지하고있다는것에서크게바뀌는것이아니라고본다. 우리는아나키스트들이대중을선도해야한다는생각을거부한다. 우리는조직의역할이이데올로기적협동을통해그구성원과유관자들이사회적역할을겸손하게수행하도록하는것으로한정되기를소망한다.

## 아나키스트조직의구성

이저점에있어 『강령』은모순적이고, 사실상스스로를자백하며, 언어상으로는우유부단하다. 하지만많은방어적입장에도불구하고그들의관념은결국정당의그것으로보인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의집행위원회는동맹의총체적인이데올로기적, 전술적방향을따라모든조직들에게이데올로기적이고조직적인방향을설정해야한다. 동시에 『강령』은위와모순되는연방주의적원칙에대한신념을확고하게드러낸다. 연방주의는근본적으로자율성을, 지역그룹의연방을, 연방의동맹으로써의총연맹을상정한다.

## 사회적투쟁및사회혁명에서대중과아나키스트의역할에관하여

이문제에대하여 『강령』이제시하는테제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대중은지도되어야만한다. 지금까지우리의운동이지향해온관점과는정반대다. 우리는지금까지개인과식적소수, 그리고그들의이데올로기조직들이“대중을지도할수없다”고주장해왔다. 대중을막다른길로인도하고싶지않다면, 우리는언제나대중으로부터배워야한다.

우리는이문제를이관점으로바라보아야한다. 『강령』이제안하는해결책은매우피상적이며오류로가득하다. 그런해결책으로는혁명적대중과의식적소수, 혹은그들의이데올로기조직의관계에관한핵심적문제가해결될수없다. 이저점에서정당들은확고한해결책을가지고있다. 그들의해결책은다음과같다.

- 대중과혁명은지도되어야만하고
- 의식화된소수가대중과유리되어주도권을가져야만하며
- 이‘집단’은당으로조직되어야만하고
- 당은사회혁명을포함한사회의모든영역에서주도권을가져야만

다.

『강령』의저자들은이와유사한입장을취하는것으로보인다. 다만그들은방어적입장을먼저취한다. “혁명적행동과혁명운동에대한이데올로기적지침은아나키스트들이새로운사회건설의통제권을줘야만한다는것으로이해되어서는안된다.”

『강령』이표현하는바대중을지도할필요성에대한관념은직관적으로당과, 잘정비된정치노선과, 사전준비된계획과, 노동운동의통제와, 반혁명에대항하기위해세워진조직에대한정치적지도와연결된다. 『강령』은 “아나키스트총동맹은사회혁명의조직으로써, 사회의두핵심계급인노동자와농민들에의존한다. ... 그들의모든활기는노동자조직의이데올로기적지침에집중되어야한다”고언급한다.

대중을정치적, 사회적으로지도하기위한조직의구체적형태와그활동태는, 가장높은곳에선위당(총동맹), 약간아래에동맹이이끄는노동자와농민의조직, 더아래에반혁명에대항하기위한기반으로세워진조직(군대)이있는형태가될것이다.

우리는아나키스트들이대중을이끌어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 우리가생각하는우리의역할은대중이필요로할때대중을돕는것이다. 이것이우리가보는우리스스로의위치다. 아나키스트들은경제적, 사회적대중조직의구성원이어야한다. 아나키스트들은전체의일부로서행동하고건설해야한다. 대중의위에서지않더라도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적으

로, 창조적으로, 활동할수있는영역은아주넓다. 무엇보다아나키스트들은자유롭고자연스러운방식으로, 그들의이데올로기적이고도덕적인영향력을충족하여야한다.

아나키스트와그조직(그룹, 연맹, 총연맹)은단지이데올로기적도움을줄수있을뿐지도자가되어서는안된다. 지도나우월성에대한작은언급조차도필연적으로대중은지도자를받아야하고, 그지도에복종해야한다는함의를담을수밖에없다. 그리고이것은지도자를독재자로만들고대중으로부터유리되게할것이다.

다시말해권력의원칙인것이다. 이원칙은아나키즘의핵심이념과모순될뿐만아니라우리가바라는사회혁명과도모순된다. 혁명은대중의자유로운창조물이어야하고어떠한이데올로기적, 정치적그룹의통제를받아서도안된다.

## 이행기에관하여

『강령』은이행기원칙을부정하면서도그것이존재한다는것은인정한다. 『강령』이최초의입장을유지하는것이있다면그것은이행기개념에대한상세한설명에서뿐이다. 다른모든내용은이행기를정당화하고있다.

일부러시아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 anarcho-syndicalists 은공개적으로이행기개념을옹호했다. 『강령』의저자들은이행기개념을명확하고공개적으로옹호하지는않는다. 이러한우유부단함과상황적판단들은이문제에대한솔직하고논리적인토론을어렵게만든다. 이를테면그들은아나키스트운동에서다수와소수의문제에대해다음과같이언명한다. “원칙적으로(고전적개념은어찌어찌하다). 하지만, 특정한시기에는(타협을이야기한다).”

우리는삶이‘순간적으로’일어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다. 다른예시는다음과같다. “우리는소비에트의결정이강제적명령없이사회에서받아들여질것이라믿는다. 하지만이러한결정은그것에동의한모두의의무가되어야하고, 그것을거부하는사람에대한규제는필요하다.”이것이강제와, 폭력과, 규제의시작이아닌가?

『강령』은다음과같이언명한다.

“통치를인정하는것은혁명의패배이자대중의예속임을인지하고있기에, 우리는혁명이아나키스트적방법론을따르도록최선을다해야한다. 하지만동시에우리는소규모활동가조직에근거한노동자조직이우리

게말하면, 우리는우리의세력을조직하는동시에우리의이상을발전시키고체계화할것이다.

『강령』의저자들은조직을단일한이데올로기적, 전술적개념에근거하여조직을건설하는것이오래된방식이라는것을잊었다. 그들이건설하고자하는조직은동일한개념을공유하지않는다른조직들과적대적인관계를가질수밖에없다. 그들은이오래된방식은결국필연적으로과거와동일한결과, 즉단일한조직구성의실패를가져올수밖에없다는것을이해하지못한다. 그리고이조직들은협력적이고조화로운관계를가지지못하고서로갈등을빚을수밖에없다. 그들모두가아나키스트임에도말이다. 각각의조직은독자성을, 자신만의심오한진리를주장할것이다. 이조직들은아나키스트운동을도울수있는선전물과활동을개발하기보다오히려서로간의격론에빠지게될것이다.

『강령』의저자들은‘이데올로기적이고전술적인단결’의필요성을부르짖는다. 하지만어떻게단결할수있는가? 이것이문제이며, 정답은존재하지않는다. 『강령』에묘사된방법론은단결을가져오는것이아니라차이를부각시키고, 논쟁을촉발하며, 우리들을적대심으로, 나아가증로이끌것이다.

『강령』의저자들이주장하는‘유일하게\*참된’이론과전술은부정되어야한다.

하지만이것은아나키스트가행동해서는안되는방식이다. 우리는다른절차를제안한다. 우리는아나키스트운동의단결을확보하고, 진지한조직을구성하는첫걸음은핵심적문제에대hang장명확한해결책을발견하기위한집단적이데올로기작업이어야한다고믿는다.

철학적, 학술적인형설수설을경멸하는동지들이있을수도있다. 하지만우리가논하고자하는것은철학적문제나추상적논설이아니다. 우리는우리가불운하게도명확한답을가지지못한구체적문제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이를테면아나키즘의건설적과업에관하여, 대중과의식화된소수의역할에관하여, 폭력에관하여, 사회혁명의과정에대한분석과이행기문제에관하여, 자유의지주의적사회를건설하기위한방법에관하여, 노동자·농민조직의역할에관하여, 무장집단에관하여, 노동조합과의관계에관하여, 코뮌주의와개인주의의관계에관하여, 우리세력을조직하는문제에관하여, 이것을어떻게실현할것인가에관하여말이다.

우리는우리의이데올로기와전술이‘공격적’이거나‘금기’라할지라도논의될수있는모든곳에서이논쟁을출간할것을제안한다. 구두토론뿐아니라, 이러한기관지역시우리에게는‘반드시’필요한것이라고보인다. 이것만이‘이데올로기적단결’, ‘전술적단결’, 그리고조직을달성할수있는실천적방법이기때문이다.

물론, 기관지를통한논의자체를거부하는동지들도있다. 그들은각각의입장을대변하는출판물들을선호한다. 우리는아나키즘에포함되는모

## 아나키스트조직에관하여

이제다시우리가고민하는바, 조직의문제로돌아오자. 세계아나키즘운동의조직부전이큰해를끼치고있다고바라본다. 우리는세력들과운동들이반드시조직되어야한다고믿는다. 하지만조직을건설함에있어, 다음 3 가지의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 조직건설의방법론에관한사항, 조직의목표와요체에관한사항, 그형태에관한사항이그것이다.

## 조직건설의방법론

아나키스트조직은왜건설되어야하며, 어떻게건설되어야하는가? 이질문에대하여답하기전에아나키스트들사이에존재하는조직부전의중요한요인에대하여이해해야한다. 『강령』의저자들은“일부아나키스트들이‘불쾌한’성격을가지고있고, ‘무책임’하며, ‘기율이부족’하다”며이를명패하고단순하게설명한다. 우리는아나키스트운동의조직부전의이유중가장중요한것은우리의기본적이상중일부가가지고있는모호하고부정확한성격이라고본다.

『강령』의저자들역시이에동의한다. 그들은‘이론과실천의모순’에대해, ‘결론없는의심’에대해이야기한다. 이질문에대해서는두가지해결의방법론이존재한다. ‘모순된이상들’중하나를택하여이를공통의계획으로채택하는것. 필요하다면규율을가진조직을건설한다. 동시에이계획에동의하지않는사람들은배제되거나운동으로부터추방되어야할것이다. 이렇게만들어진조직(유일한조직)은나아가그이상을명확히할것이다.(아나키스트의이상은충분히명확하다고믿는동지들이있다.) 진지한조직이만들어진이상, 우리는우리의모든활력을기울여우리의이상을명확히하고, 심오하게하며, 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다해야할것이다.

무엇보다우리는이론의영역에서‘모순’을줄이고자노력해야한다. 조직을건설하기위한노력은우리의이데올로기적작업을도울것이다. 다르

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는것을알고있다. 이조직은구체적조직에의해인시되어야한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은논의를선도하고이에동의하지않는경우그에관한답을결정할것이다. 이것이쟁점이다. 우리는혁명의방어에관한언급에서도유사한모순점을발견할수있다.

“정치적으로, 군대는누구에게복종해야하는가? 노동자들이단일한조직으로대변되지않기에, 그들은다종다양한경제조직들을조직할것이다. 그렇기에우리가군대의원칙을도입한다면, 우리는군대가노동자와농민의경제조직에복종해야한다는원칙을도입해야...”

이것이바로이행기다!

『강령』은언론과표현의자유에대해, “언론이혁명의이득을위해통제될수있는특정한시기가있을수있다”고언급한다. 누가“특정한시기”를결정하는가? 누가그“한계”를결정하는가? 다른이름으로부른다고권위와권력이권위와권력이아니게되는것이아니다.

『강령』은아나키즘의원칙이“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분배하는”것이라고적는다.

“이원칙은아나키즘적코뮌주의의근간이다. 하지만이것은원칙적개념이다. 그실현은혁명초기에지나야하는실질적단계들에의존한다.”또다시‘하지만’이다. 이것이이행기가아니면무엇이이행기인가?

대중을선도할필요성에대한생각이나왔고이것은공권력의요소를, 이행기적요소의필요성을불러낸다. 논리적으로명확하다. 반면우리는사회혁명의핵심요소는노동대중이역사적경험을통해사회적파괴에밀어넣어짐으로써, 스스로무엇을하는지인지한채, 자유로운사회를성취하는것이라본다.

## 생산에관하여

생산은어떻게조직되어야하는가? 생산은불세비키들이조직한것처럼중앙집중적이고계획된방식으로조직되어야하는가? 아니면연방주의에근거하여탈집중화되어야하는가?

이것이가장중요한논점이라할수있다. 『강령』의저자들은다음과같이기술한다. “생산의조직은소비에트, 공장위원회등노동자들이구성한조직에의하여이루어져야한다. 이조직들은도시, 지역, 국가적생산을지도하고조직할것이다. 이들은그들을선출하고통제하며, 언제나소환할권리가있는대중들과밀접하게관계를맺을것이다.”

『강령』은 선거라는 단순한 교정만을 제외하면, 중앙집중화되고 기계적인 체계를 수용한다. 이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행정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큰 변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계적이고 생동력 없는 과정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참여는 ‘선거’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대중은 생산의 조직에 즉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위원회들을 거부하지 않는다. (공장 위원회, 작업장 위원회 등) 또한 우리는 그들간의 관계와 협동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조직들은 부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경직성, 관료제, 선거만으로 자연스레 바뀌지 못할 권위화의 경향이 그것이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과 활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증가한 더 유연하고, 임시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즉, 분배의 기구, 소비자 기구, 주택 기구 등등 말이다. 이 모든 기구들이 함께 함으로써, 사회생활의 복잡함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혁명의 방어에 관하여

『강령』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바라본다.

“혁명의 첫날, 무장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이 투쟁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발적 무장력은 초기에만 유효할 것이다. 내전이 최고조로 치달고, 양측에서 정식으로 구성된 군사기구를 만들고 나면, 그 유효성은 줄어든다.” “무장혁명 세력은 통일된 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가진 혁명군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혁명의 방위 기구는 주요한 군사적 전선뿐 아니라, 내적 전선 (부르주아지의 음모, 반혁명 행동의 준비) 에서 반혁명과의 전투를 책임진다. 이 방위 기구는 전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생산조직의 관할 아래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서술에서 기술적 오류 하나와 정치적 오류 하나를 발견한다. 기술적 오류는 이것이다. 오직 중앙집중화된 군대만 혁명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 정반대인 ‘오직 고립된 지역 부대의 독자적 투쟁만이 혁명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본다는 사실을 먼저 적시하도록 하자. 다만 고도로 집중된 지휘체계가 총체적 작전 행동을 구성하는 것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 협력이 없는 행동은 비효율적이다. 전자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역적, 개인적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것, 집행 기구에 무게를 두는 것, 중앙을 실패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 전문가들에 우위가 주어지는 것 역시 중앙집중적 명령 체계의 약점들이다. 후자의 단점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러시아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무장한 노동 대중의 참여는 혁명 초기 뿐 아니라 투쟁 전체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와 농민의 지역적 조직은 그들의 행동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공통된 목표를 향한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무장 조직을 요하는 상황도 대래할지라도, 지휘 체계는 중앙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에는 효과적 공동 투쟁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 전선은 변화하는 상황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데니킨 Denikin, 콜차크 Kolchak, 브란겔 Wrangel 등의 반동 세력과 투쟁에서 파르티잔 부대들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된다. 중앙의 지휘 체계와 선형적 전략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앙군은 언제나 기습 당했고, 이에 적응하지 못했다. 많은 경우 중앙집중화된 적군은 늦게 도착했고, 진정한 승리자인 파르티잔들로부터 월계관과 영광을 수여받기만 했을 뿐이다. 언젠가 역사는 군사적 중앙집중의 관료성에 관한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공고한 중앙군이 없이 혁명을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수호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우선 이 위험성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먼 곳으로부터의 개입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또한, 러시아 혁명 역시 이러한 개입들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들은 중앙군이 아닌 파르티잔 부대에 의하여, 대중의 적극적인 항의에 의하여, 침략군의 병사들에 대한 격렬한 혁명적 선동에 의하여 격퇴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통일된 지휘 체계와 ‘정치적 지도’를 받는 중앙군은 혁명군을 멈출 가능성을 너무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한다. 그 군대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퇴보의, 반동의, 혁명을 죽이는 도구가 될 것이다. 과거의 역사에서 이러한 교훈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장가까운 예로, 러시아 혁명에서 적군의 역할을 보라.

군대를 ‘정치적 수호자’, ‘반동을 향한 무기’라 칭하는 『강령』의 입장은 놀랍다. 우리는 이러한 기구는 사회혁명에 부정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열정을 가지고 무장한 인민들이 혁명의 핵심적 문제 (특히 생산의 문제) 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낼 때에만 ‘부르주아의 음모’에 대한 충분한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인민들이 실패한다면 어떠한 ‘기관’도, ‘군대’도, ‘체카 tcheka’도 혁명을 수호할 수 없다. 이 관점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의 옷을 입지 않는 한 혁명의 문제는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전형적인 볼셰비키적 관념이다.

우리는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대중 조직을 지도하는 지도자 격의 조직 (동맹) 에 의한 정치적 지도, 그리고 그 지도를 뒷받침하는 중앙군은 새로운 정치적 권력일 뿐이다.